

청년여성의 지역이동 특성과 수도권 취업이동 분석 : 1970, 1980, 1990년대생 코호트 간 비교*

고 영 우**

I. 머리말

인구이동은 한 지역의 인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성, 연령 등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이동성향의 차이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출산력과 사망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이현욱,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의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할 지역 간 인구 이동의 성별, 연령별 구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미래의 지역별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일 수 있다(이상일·조대현, 2012).

인구이동 연구에서 특정 연령집단의 이동 패턴에 대한 분석은 주요한 연구로 자리매김하여 왔다(Rogers, 1979). 이러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연령대에 따라 이동률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와 함께 동반이동이 발생하는 유아기에 높은 이동률이 나타나고, 성인기를 거치는 20~30대 연령대에 높은 이동률이라 발견된다(Pandit, 1997). 특히 20대 시기의 높은 인구이동 현상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첫 직장 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결혼 등 생애주기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며 지리적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령, 성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동성향의 차이, 즉 ‘인구이동의 선별성’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특정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선별성이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특히 이동성향이 높은 20~30대 청년여성에 초점을 맞추어(김준영, 2016),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 태어난 각 청년여성 코호트의 지역이동 성향과 취업이동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 이 글은 고영우 외(발간예정), 『지역노동시장과 여성고용에 대한 연구』 중 제4장의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ywko@kli.re.kr).

하였다. 청년여성의 인구이동 특성과 시기에 따른 변화는 지역의 인적자원 구성과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청년여성의 지역이동을 고교, 대학, 첫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5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비중 변화를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생 코호트 간 비교를 통해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첫 직장에 취업하는 지방(도 지역) 출신 청년 여성의 지역이동 성향 변화를 수도권, 수도권 외 광역대도시, 그 외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청년여성의 수도권 취업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서 시기에 따른 결정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청년 여성의 지역이동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고교, 대학, 첫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이동을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① 비 이동(고교=대학=직장), ② 진학이동 후 잔류(고교≠대학=직장), ③ 취업이동(고교=대학≠직장), ④ 진학이동+취업이동(고교≠대학, 대학≠직장, 고교≠직장), ⑤ 진학이동 후 회귀(고교≠대학, 대학≠직장, 고교=직장). 지역 간 이동 여부는 고교, 대학, 첫 직장 소재지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판별하였다.¹⁾

<표 1>의 이동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고교-대학-직장 간 이동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유형 1의 비중은 표본에서 전체적으로 6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출생년 코호트로 다가올수록 그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유형 3(취업이동)과 유형 5(진학이동 후 회귀)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은 코호트별로 정반대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의 경우에는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유형 5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990년대생 코호트에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형 2(진학이동 후 잔류)의 비중 역시 최근 출생년 코호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고교 출신자가 대학 진학 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대부분이 지방에서 취업을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출생년 코호트별 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 5개 권역을 기준으로 지역이동을 식별하였다. 여기서 지역 간 이동여부를 16개 광역시도 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5개 권역 간 이동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표 1〉 이동유형별 표본 비중 : 출생년 코호트별 비교(여성)

(단위 : 명, %)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	전 체
유형 1: 비 이동 (고교=대학=직장)	261 (63.7)	471 (61.5)	191 (59.0)	923 (61.5)
유형 2: 진학이동 후 잔류 (고교≠대학=직장)	30 (7.3)	66 (8.6)	33 (10.2)	129 (8.6)
유형 3: 취업 이동 (고교=대학≠직장)	71 (17.3)	90 (11.8)	39 (12.0)	200 (13.3)
유형 4: 진학이동+취업이동 (고교≠대학, 대학≠직장, 고교≠직장)	12 (2.9)	27 (3.5)	7 (2.2)	46 (3.1)
유형 5: 진학이동 후 회귀 (고교≠대학, 대학≠직장, 고교=직장)	36 (8.8)	112 (14.6)	54 (16.7)	202 (13.5)
전 체	410 (100.0)	766 (100.0)	324 (100.0)	1,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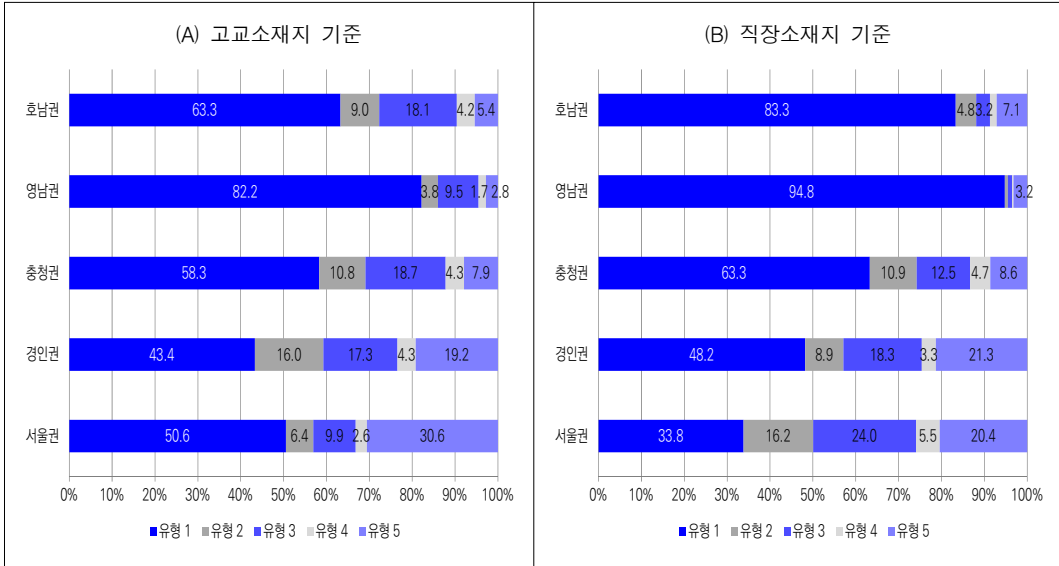
주 : 1) 지역 간 이동은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가지 권역을 기준으로 고교 소재지, 대학 소재지, 직장 소재지의 동일 여부로 정의함.

2) ()안의 수치는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1]에는 권역별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유형별 분포가 어떤지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출신 고교 소재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을 이동하지 않은 유형 1(비 이동)의 비중이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영남권의 경우에는 무려 82.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권과 경인권의 경우에는 다른 권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이동자(유형 1) 비중이 낮은 반면, 대학진학 이동 후 회귀하여 취업한 유형 5(진학이동 후 회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장소재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남권(94.8%) 및 호남권(83.3%)의 비이동자(유형 1) 비중이 현저히 높은 반면, 서울권의 비이동자(유형 1) 비중은 3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교소재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권 및 경인권의 유형 5(진학이동 후 회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소재지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서울권(24.0%)과 경인권(18.3%)의 유형 3(취업이동)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 5개 권역 기준 이동유형 비중(모든 코호트 여성)



주 : 1) 유형 1은 비 이동(고교=대학=직장), 유형 2는 진학이동 후 잔류(고교≠대학=직장), 유형 3은 취업이동(고교=대학≠직장), 유형 4는 진학이동+취업이동(고교≠대학, 대학≠직장, 고교≠직장), 유형 5는 진학이동 후 회귀(고교=대학, 대학≠직장, 고교=직장)를 의미함.

2) 서울권(서울), 경인권(인천/경기/강원),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III. 청년여성의 첫 직장 취업이동

청년층의 첫 직장 취업 시 거주지를 비롯한 지역이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대학교 진학 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비이동자의 경우에는 취업 시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과 장소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중대한 의사결정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권역이 좁다고 알려져 있는 지방 출신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 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고 졸업 이후에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첫 직장에 취업하여 생활하게 되는 것이 청년 여성 개인에게는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닐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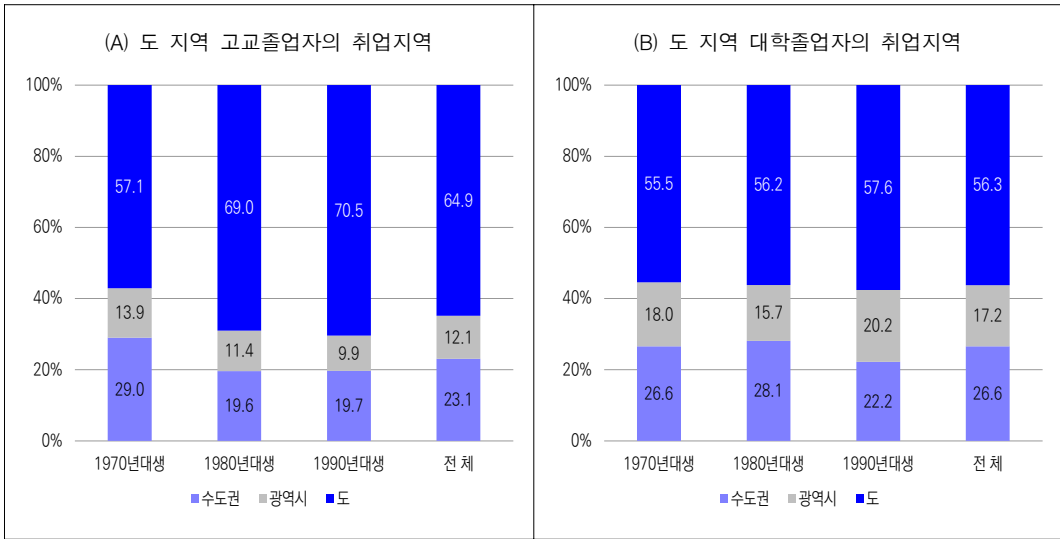
[그림 2]에는 지방(도 지역) 출신 청년 여성들의 첫 직장소재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²⁾ 먼저, 도 지역의 고교졸업자를 기준으로 취업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약 23.1% 정도가 수도권(서

2) 여기서 '지방(도 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되는 경기도를 제외한 8개(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을 의미한다.

울(인천/경기)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64.9% 수준에 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방에 남아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출생년 기준 코호트별로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만 최근 출생년 코호트로 올수록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중은 줄어들고 지방에서 그대로 취업하는 비중이 다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도 지역) 대학 졸업자의 취업지역을 살펴봐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보다는 지방 취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최근으로 올수록 수도권 취업자 비중은 줄어들고 도 지역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최근 청년 여성의 지역이동,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 청년층 여성의 첫 취업이동 패턴

(단위 : %)



주 :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광역시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이, 도 지역에는 나머지 8개 광역자치단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포함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Pierson(2000)은 노동시장이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변경하는 이동은 주거지의 변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동반하는 행위임을 언급하였다. 노동시장의 선택은 일종의 경로의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단계에서 한 차례 선택이 이루어지면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권오규·마강래(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 출신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에 직장을 가질 확률이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에 취업할 확률보다 약 1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신 대학 소재지가 직장소재지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그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현욱(2013)의 연구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둔화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의 감소 원인을 살펴보고자, 신규 취업자들의 취업문제로 대두된 불안정 고용형태와 취업이동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이동 의사결정에 불안정 고용형태의 저임금, 신규 취업에 있어서의 불안정 고용형태의 전국적 확산, 정규직 고용형태로의 낮은 고용전환율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2>는 지방(도 지역) 출신 청년 여성들의 정규직 비중을 직장소재지 및 출생년 코호트별로 보여주고 있다. 취업지역별로는 수도권 취업자의 정규직 비중이 지방(도 지역) 취업자의 정규직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 고교 졸업자 및 지방 대학 졸업자의 경우와 상관없이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출생년 코호트별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우선 최근으로 올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수도권 취업자 집단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최근 둔화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의 원인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 취업지역별 정규직 비중

(단위 : %)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	전 체
(A) 도 지역 고교졸업자 기준				
수도권	77.3	75.0	53.8	72.7
광역시	58.3	77.1	53.8	65.5
도	64.9	60.7	45.2	58.8
전 체	67.6	65.4	47.7	62.8
(B) 도 지역 대학졸업자 기준				
수도권	88.2	66.2	50.0	69.2
광역시	69.6	69.8	50.0	65.1
도	83.1	58.4	43.9	61.7
전 체	82.0	62.4	46.5	64.3

주: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광역시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이, 도 지역에는 나머지 8개 광역자치단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Ⅳ. 청년여성의 수도권 취업 결정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청년 여성의 취업지역 선택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도권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정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수도권 취업여부에 대한 이산변수(binary variable)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 취업 시 나이, 출생년 코호트 구분, 대학소재지 구분, 4년제 대학 여부, 정규직 여부, 로그 시간당임금 등을 활용하였다. 산업 및 직종은 대분류 수준에서 통제하였다.

<표 3>은 수도권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수행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대학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닐 경우에 수도권으로의 취업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코호트 구분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1970년대생 여성들에 비해서 1980년대생 여성의 수도권 취업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199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의 취업확률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당시의 나이가 많을수록 수도권 취업확률이 높은 것

〈표 3〉 수도권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 : 프로빗 분석결과

종속변수 : 수도권 취업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취업 시 나이		0.032 **	0.033 **	0.036 **
코호트 (기준 : 1970년대생)	1980년대생	0.238 *	0.256 *	0.291 **
	1990년대생	0.226	0.262	0.346
대학 소재지 (기준 : 수도권)	광역시	-2.881 ***	-2.895 ***	-2.891 ***
	도	-2.406 ***	-2.420 ***	-2.414 ***
4년제 여부		0.289 ***	0.294 ***	0.244 **
정규직 여부		-	0.162	0.133
로그 시간당임금		-	-	0.316 ****
산업통제(대분류)		Yes	Yes	Yes
직종통제(대분류)		Yes	Yes	Yes
연도통제		Yes	Yes	Yes
결정계수		0.493	0.494	0.501
표본수		1,603	1,603	1,584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표 4〉 코호트별 수도권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 프로빗 분석결과

종속변수 : 수도권 취업여부		1970년대생 코호트	1980년대생 코호트	1990년대생 코호트
취업 시 나이		-0.012	0.064 **	0.009
대학 소재지 (기준 : 수도권)	광역시	-2.780 ***	-3.160 ***	-3.453 ***
	도	-2.273 ***	-2.590 ***	-3.284 ***
4년제 여부		0.259	0.309 **	0.262
정규직 여부		-0.075	0.189	0.389
로그 시간당임금		0.255	0.368 **	0.273
산업통제(대분류)		Yes	Yes	Yes
직종통제(대분류)		Yes	Yes	Yes
연도통제		Yes	Yes	Yes
결정계수		0.497	0.538	0.593
표본수		409	848	315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0차 (학술대회용) 자료.

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문대 졸업생에 비해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부는 수도권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수준은 수도권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는 수도권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코호트별로 보여주고 있다.³⁾ 우선, 취업 선택에 있어서 지역이동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소재지 구분에 대한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코호트에 상관없이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이 수도권 취업확률을 높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코호트별 추정결과 비교를 통해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취업지역 선택에 있어서 지역이동이 경직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도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보다 수도권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1970년대 출생 코호트에 비해 199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추정치의 절대값이 크게 추정되는 바, 199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는 지역 내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년제 대학교 여부는 1980년대생 코호트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1970년대생 코호트와 1990년대생 코호트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수도권 취업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본 전체 코호트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여부는 수

3) 코호트별 분석을 위한 표본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약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코호트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권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최근으로 다가올수록 청년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지역이동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이동 연구에는 성별·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동의 선별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다. 2000년대 전후에 첫 취업을 하게 되는 코호트(1970년대생/1980년대생/1990년대생)별로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인구이동이 감소한 이유로 청년층의 낮은 대학진학 이동 및 대학소재지에서의 취업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대학소재지와 취업지역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바, 지방고교 출신자의 경우 대학 진학 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대부분이 지방에서 취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층 여성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 출신 청년층 여성의 지방 취업 경향 강화는 지역 차원에서 인구를 유지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대학소재지와 직장소재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신 대학 소재지에 지속적으로 잔류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이 아닌, 도시 규모별 취업지역 선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수행하지 못한 분석이 존재하는 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 이외의 자료들, 예컨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L**

[참고문헌]

권오규·마강래(2012), 「대학진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연구』 28(4), pp.65~77.

- 김준영(2016), 「청년인구의 지방유출과 수도권집중: 5가지 특징」,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가을호, pp.6~24.
- 이상일·조대현(2012), 「지역간 인구이동의 예측을 통한 우리나라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다지역 코호트-요인법의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47(1), pp.98~120.
- 이현욱(2013), 「청년층 여성의 취업이동과 불안정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pp.105~118.
- Clark, W. and J. Onaka(1983), “Life Cycle and Housing Adjustment as Explanations of Residential Mobility,” *Urban Studies* 20(1), pp.47~57.
- Pandit, K.(1997), “Cohort and Period Effect in U.S. Migration: How Demographic and Economic Cycle Influence the Migration Schedul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7(3), pp.439~450.
- Pierson, P.(2000), “Path Dependence, Increasing Returns,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pp.251~267.
- Rogers, A.(1979), “Migration Patterns and Population Redistribut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9(4), pp.275~310.